

## 일상문화를

# 미국이라는 프리즘에 비춰보고 싶었다

《마녀가 더 섹시하다》 | 김순덕 지음 | 굿인포메이션 | 350쪽 | 값 9,800원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마녀가 더 섹시하다'는 단정적인 제목에서 짐작되듯 '마녀'와 '섹시하다'는 두 가지 코드로 뉴욕으로 대변되는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일 년 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일상문화를 연구하며 연수중 동아닷컴에 올린 <김순덕의 뉴욕일기>를 책으로 묶어낸 그는 "미국과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책은 '미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일상문화 연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학자가 아니니 가장 사소한 것을 통한 가장 중요한 것의 발견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책에는 학벌과 정치권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국의 실상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까지 뻗어 있다.

"뉴욕에 있는 동안 감히 세상사는 이치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현실이 결코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포장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코팅을 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그게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

"미국 가면 최소한 영어라도 잡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주류나 핵심세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너무나 절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습을 해보자 해서 미국에 간 것인데 우리하고 똑같아 절망했죠. 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개인이 해결 안 하면 사회나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나 곤고하게 짜여 있어서 쉽게 안 바뀌죠."

9·11테러 현장에 있어서 기자로서 더없이 행운이었지만 그는 참사의 현장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쓸쓸한 확인을 했다. "재밌는 게 9·11 지나고 바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정의 소중함도 갑자기 잃을 수 있다, 식구들이랑 밥 먹는 게 참 소중한 일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을 지배했죠. 사치 낭비 안 하고 개과천선한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석 달을 못 가더군요."

그는 직장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능력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점이라고 충고한다.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게 평생의 직업하고 사소한 일하고 뭐가 중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랬지만 자신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설정을 하고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은 걸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일반화된 남성의 시각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이 땅의 여성들이 직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지켜본 자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섞여 있다. 정치력이 필수인 조직에서 일만 잘하면 된다면 '무대뽕' 정신으로 일관하는 여성에게 '화성에게 보내는 사과문'이라는 글을 통해 그의 생각을 전해준다. 존그레이의 《일터로 간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 나오는 대로 "금성에선 옳은 것이 화성에선 그렇지 않고, 화성에선 높게 평가받는 것이 금성에선 거꾸로 평가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이는 이야기는 하기 싫어한다. 모범답안도 필요하지만 그렇게는 쓰고 싶지 않다.

"전 독자 메일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름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세상과 불화하고 때로는 즐거가며 그는 전형적이고 재미없는, 시시한 것들과 김순덕 식의 솔직함으로 끊임없이 결별하고자 한다. **한**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